

경력미결정과 부적응간의 관계*

탁진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이 연구는 경력미결정의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과 개인의 부적응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 보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Jones(1989)가 개발한 경력미결정 척도의 요인을 분석하고 부적응 변인으로서 전공 및 학교에 대한 적응, 자기효능성, 주관적 복지, 상태 및 특성불안, 우울, 신체화 등의 다양한 변인을 포함시켰다. 또한 성별 및 학년에 따라 경력미결정 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했다. 자료는 350명의 대학생들로부터 얻어졌다. 공통요인분석결과 다섯 개의 요인구조가 경력미결정 척도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자기명확성 부족',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 '우유부단함',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다. 경력미결정 요인은 전반적으로 부적응 변인과 관련이 있었다. 부적응과 관련이 큰 요인은 '우유부단함',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으며, '우유부단함'과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요인은 모든 부적응 변인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남녀가 경력미결정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을 제외한 다른 네 요인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학년에 따라서는 경력미결정 요인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와 시사점과 미래의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다가 숨을 거두는 사람은 무척이나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내 끝까지 그 일에 종사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이 일 저 일을 해보다가 늦게 서야 겨우 자신에 맞는 일을 선택하기도 한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개인의 경력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미래의

경력에 대해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단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경력미결정(career indecision)은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Callanan & Greenhaus, 1990). 경력미결정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들어 경력개발의 한 주제로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경력미결정은 고등학생(Prediger & Sawyer, 1986), 대학생(Carney, Savitz, & Weiskott, 1979)뿐 아니라 일반 성인(Callanan & Greenhaus, 1990)도 직면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경력미결정에 관한 초기 연구는 단순히 조사대상을 경력결정자와 경력미결정자로 구분한 뒤, 여러 심리적 변인에서 두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이 논문의 초고에 귀중한 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속

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찍이 Goodstein (1965)은 경력미결정과 심리적 변인 가운데 하나인 불안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해석은 불안이 결과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서 개인이 경력결정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이 나타난다고 본다. 다음은 불안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으로서, 불안 때문에 경력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 받는다는 것이다. 경력미결정에 관한 과거 연구는 대부분 불안과 같은 심리적 변인을 결과변인으로 해석하였다.¹⁾

Goodstein의 연구 이래 경력미결정과 불안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경력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불안 수준이 더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Fuqua, Seaworth, & Newman, 1987; Hawkins, Bradley, & White, 1977; Kimes & Troth, 1974). 또한 경력미결정은 자존심(Resnick, Fauble, & Osipow, 1970)과 통제위치(Hartman & Fuqua, 1982)와 같은 다른 심리적 변인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 후 다양한 경력미결정 척도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경력미결정자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찍이 Goodstein(1965)은 경력미결정자를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유형과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후속 연구(Fuqua & Hartman, 1983; Hartman, Fuqua, & Blum, 1985)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으며 최근 들

어 좀 더 다양한 유형들로 구분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는 연구는 주로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Larson, Heppner, Ham 및 Dugan(1988)은 군집분석을 통해서 미결정자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무조건적 회피자로서 전혀 경력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문제해결을 피하려고 하는 유형을 말한다. 두 번째는 정보 있는 미결정 유형으로서 경력계획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자신의 능력을 불신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자신감은 있으나 정보가 부족한 유형이며, 네 번째는 문제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정보가 부족한 유형이다. 최근에는 대학생이 아닌 관리자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하여 경력미결정자의 유형을 나누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Callanan & Greenhaus, 1992).

한편 일련의 연구자는 요인분석 기법을 통하여 경력미결정의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이 심리적 변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Fuqua, Newman 및 Seaworth(1988)는 경력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er, 1976)를 요인분석해서 얻어진 네 요인인 상태 및 특성불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자신과 경력에 관한 정보의 필요, 다양한 경력에 관한 정보의 필요 및 경력선택에서의 장애 요인들은 모두 상태 및 특성불안과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다양한 흥미 요인은 상태 및 특성불안과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Jones(1989)는 직업결정척도(Vocational Decision Scale: Jones, 1977)를 수정한 경력결정프로파일(Career Decision Profile)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자기 명확성(자신의 흥미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직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 단호성(결정 자체를 내리는데 겪는 어려움) 및

1) 이 논문의 심사위원은 불안을 비롯한 부적응 변인이 경력미결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음. 필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적응을 종속변인 또는 준거변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개념적으로도 부적응은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경력미결정도 이러한 변인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적응을 경력미결정의 결과변인으로 해석했음.

경력선택의 중요성(경력선택이 중요하지 않은 정도) 등의 4개 요인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요인들과 특성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요인이 특성불안과 다르게 관련되었음을 발견하였다.

Schulenberg와 Shimizu(1990)가 경력결정척도(CDS: Osipow, 1980)를 요인분석한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은 혼돈(경력결정을 내리는 데서의 혼란, 실망, 경험이나 정보의 부족을 나타냄), 지원(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잘 모르며 처음의 결정에 대한 지원을 바람), 접근-접근(여러 가능한 경력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의 갈등을 나타냄) 및 외적 장애(경력선택을 방해하는 외적 장애를 나타냄) 등이었다.

자신의 장래 경력을 정하지 못하여 갈등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력미결정 요인에는 무엇이 있고 경력미결정 전체 점수뿐 아니라 각 요인이 개인의 부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어떠한 경력미결정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과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실제 개인의 부적응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장래 경력을 결정하지 못해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직장인들까지도 겪는 정신적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만 이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경력미결정에 관한 연구를 개관해 볼 때 경력미결정 척도의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이 개인의 부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경력미결정 유형 또는 요인만 분석했거나 경력미결정 요인이 소수의 심리적 변인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Jones(1989)가 이와 유사한 연구를 시도했으나 부적응에 관련된 변인으로서 특성불안 하나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경력미결정 요인과 부적응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거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이 연구는 경력미결정의 요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부적응 변인을 포함시켜 각 요인과 개인의 부적응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첫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Jones(1989)가 개발한 경력미결정 척도를 변안하여 요인을 분석하였고 개인의 부적응 변인으로서 전공 및 학교에 대한 적응, 자기효능성, 주관적 복지, 상태 및 특성불안, 우울, 신체화 등의 변인을 포함시켰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성별 및 학년에 따라 경력미결정 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변인들과 경력미결정간의 관계를 살펴본 과거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남녀에 따라 또는 학년에 따라 경력미결정 요인에서 차이가 있다면 각 집단에 대한 경력상담 또는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시 좀 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방법

조사대상 및 절차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는 상위권 대학에 속하는 서울 시내 S대학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350명의 학생들로, 수업시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

문지를 배부한 후 작성토록 하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남학생은 76%이고 여학생은 24%였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17%, 2학년이 25%, 3학년이 20%, 그리고 4학년이 38%였다. 전공별로는 문과계열이 75%, 이과계열이 25%였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각 변인에서 사용한 척도는 본래의 측정도구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계수인 Cronbach alpha를 계산하여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1) 경력미결정(alpha = .86): 경력미결정 척도는 Jones(1989)가 개발한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Jones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자기 명확성(자신의 흥미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직업과 훈련에 대한 지식(직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 단호성(결정 자체를 내리는데 겪는 어려움) 및 경력선택의 중요성(경력선택이 중요하지 않은 정도) 등의 네 개 요인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을 5개 문항을 제거한 후(결과 참조) 실제 분석에는 1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8점 Likert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8 = 확실히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력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자기효능성(alpha = .79): 자기효능성은 Shei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및 Rogers(1982)의 7개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변인은 자신이 직면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측정하며 5점 Likert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확실히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 속하는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다' 등과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성이 높도록 점수화 되었다.

(3) 학교 적응(alpha = .72): 소속대학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한덕웅,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및 이건호(1993)가 개발한 문항 가운데 요인계수가 높은 3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5점 Likert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확실히 그렇다)로 만들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잘됨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속하는 문항은 '나는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등이 있다.

(4) 전공학과 적응(alpha = .80): 자신의 전공학과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서 한덕웅 등(1993)이 개발한 문항 가운데 요인계수가 높은 3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5점 Likert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확실히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잘됨을 나타내도록 점수화 되었다. 이 척도에 속하는 문항은 '전공 공부는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전공 공부는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 같아서 만족한다' 등이 있다.

(5) 주관적 복지(alpha = .66): 개인의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측정하며, 한덕웅 등(1993)이 개발한 4개 문항(5점 척도: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확실히 그렇다)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복지가 높도록 점수화 되었다. 문항으로서는 '나는 현재 전반적인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현재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등을 포함한다.

(6) 상태불안(alpha = .93): 상태불안은 최근 며칠 동안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Spielberger, Gorsuch 및 Lushene(1970)의 척도를 번

안해 한덕웅, 이창호 및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긴장되어 있다', '나는 초조하다', '나는 안절부절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개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도록 점수화 되었다.

(7) 특성불안(alpha = .91): 특성불안은 평소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Spielberger, Gorsuch 및 Lushene(1970)의 척도를 변안해 한덕웅 등(1993)이 표준화한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는 쉽게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는 편이다' 등의 문항이 있다.

(8) 우울(alpha = .92):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한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한덕웅 등(1993)이 요인계수를 토대로 11개 문항으로 줄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난 7일 동안 각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5점 Likert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에 의거해서 반응토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상태가 높도록 점수화 되었다. 이 척도에 속하는 문항으로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없었다', '식사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식욕이 떨어졌다' 등이 있다.

(9) 신체화 : 신체화는 한덕웅 등(1993)이 사용한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난 7일 동안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5점 Likert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에 의거해 반응토록 하였다. 이 척도는 소화장애(5개 문항, alpha = .88), 심장혈관 장애(5개 문항, alpha = .88), 통증(5개 문항, alpha = .87) 및 불면(3개 문항, alpha = .73)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

위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화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도록 점수화되었다. 소화장애에 속하는 문항으로는 '위가 답답하다', '속이 쓰리고 아프다' 등이 있고, 심장혈관 장애 문항으로는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숨이 가쁘고 답답하다' 등이 있다. 통증에 속하는 문항은 '팔다리가 쭈시고 아프다', '팔다리가 묵직하다' 등이며, 불면에는 '잠을 자기가 어렵다',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주 깬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분석방법

경력미결정 척도의 요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통 요인분석 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력미결정 척도의 하위 요인과 부적응간의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력미결정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부적응 변인을 준거변인으로 두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 경력미결정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든 분석은 SPSS Window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결 과

경력미결정 요인

경력미결정 척도의 요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성분분석 실시 결과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은 5개로 나타났다. Scree 검사 결과는 3개의 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척

표 1. 경력미결정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h ²
	1	2	3	4	5	
내 흥미가 무엇인지 좀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86	13	-01	13	04	77
내 능력, 장점 및 단점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85	01	-02	12	13	75
어떤 직업이 내 성격과 가장 잘 맞는지 알고 싶다	74	16	-15	08	06	61
나의 욕구 및 능력에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68	21	-10	02	08	52
직업을 잘못 선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16	76	-03	27	06	68
내 흥미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와 맞는 직업을 어떻게 하면 찾을지 잘 모르겠다	03	55	03	19	21	39
현재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나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05	52	29	23	20	45
직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나한테 맞는 직업을 고르기가 힘들다	16	51	21	10	09	35
나는 내가 관심있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12	47	14	36	09	39
내 흥미가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과 맞을지 잘 모르겠다	27	45	-04	17	19	35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09	08	82	08	06	69
현재로서는 어떤 직업 분야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	-06	23	78	10	05	67
이 시점에서 직업 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03	-05	69	-01	08	48
미래의 나의 경력은 현재 나에게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1	07	48	04	-02	25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다	19	26	-03	82	16	80
나는 결정을 쉽게 못 내린다. 그래서 결정을 연기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	36	08	72	25	77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면 안도감을 느낀다	-01	26	16	44	01	29
내가 관심있는 직업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에 관해 잘 모른다	14	40	18	13	76	81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에 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2	31	04	34	57	58
고유치	5.35	2.68	1.37	.67	.54	전체
설명변량	28.2	14.1	7.2	3.5	2.8	55.8

주. 요인계수에서 소수점이 생략되었음.

도를 개발한 Jones(1989)의 연구에서는 4개의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요인수를 3개, 4개 및 5개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다. 경력미결정 척도를 구성하는 의미 있는 공통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분석 방법중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method)을 통해 분석하였다. 공통분 추정치는 중다상관제곱치를 이용해 구했으며, 직각회전 방법의 하나인 varimax 방법을 통해 요인구조를 회전시켰다. 3개, 4개 및 5개의 요

인구조 가운데 해석하는데 가장 의미가 있는 구조는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요인구조였다. 이 요인구조에서 나타난 요인계수 가운데 해당 요인과의 관련정도가 .40이하이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과 관련 정도가 높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5개의 문항이 제거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된 경력미결정 척도는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1은 19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서 각 문항과 관련 요인과의 요인계수를 보여준다. 이 요인구조는 전체 변량의 55.8%를 설명했다. 요인

1(4개 문항)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자기 명확성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6개 문항)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로 명명하였다. 요인 3(4개 문항)은 직업을 택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3개 문항)는 평소에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우유부단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2개 문항)는 직업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명명하였다.

경력미결정 요인과 부적응간의 관계

경력미결정 요인이 부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요인과 부적응 변인간의 단순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각 요인의 점수는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얻었다. **표 2**는 이 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경력미결정 요인은 부적응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과 관련이 큰 요인은 '우유부단함',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다. 특히 '우유부단함'과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요인은 모든 부적응 변인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믿는 정도가 강하고, 어떤 직업이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와 맞는지 잘 모르는 정도가 강할수록 개인의 학교 및 전공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고,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이 낮고, 자기효능성이 낮고, 상태 및 특성불안이 높고, 우울정도가 심하며, 소화장애, 심장장애, 통증 및 불면과 같은 신체화의 정도가 더

심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학교와 전공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고, 주관적 복지가 낮고, 자기효능성이 떨어지고, 상태 및 특성불안이 높으며 우울 정도가 심했다.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은 부적응 변인과 별다른 관련이 없었다. 다섯 개의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경력미결정 척도 전체를 놓고 분석했을 때도 모든 부적응 변인과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이 결과는 자신의 미래 경력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정도가 강할수록 부적응에 부적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은 부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력미결정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전체 요인들이 부적응 변인을 어느 정도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부적응 변인을 준거변인으로 두고 5개의 경력미결정 요인을 예언변인으로 둔 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는데, **표**에서 보듯이 부적응 변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우유부단함'이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유부단함'은 학교적응과 전공적응을 제외하고 다른 부적응 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그 다음 중요한 요인은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였다. 다른 요인들은 부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경력미결정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설명되는 변인은 특성불안이었다(전체 변량의 32%), 상태불안(21%)과 자기효능성(21%)도 많이 설명되는 변인에 속했다. 모든 부적응변인의 설명변량은 유의했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경력미결정 요인에서의 차이

남녀에 따라 경력미결정 요인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표 2. 경력미결정 요인과 부적응 변인간의 상관계수

경력미결정 요인	학교 적응	전공 적응	주관적 복지	자기 효능성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소화 우울	심장 장애	통증 장애	불면 통증	
자기명확성 부족	-.08	-.09	-.03	-.04	.08	.18***	.04	-.02	.05	.04	-.05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16*	-.28***	-.32***	-.33***	.32***	.46***	.25***	.14*	.22***	.17**	.18***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	.06	-.04	-.18***	-.10	-.03	.04	.05	.04	.08	.05	.01
우유부단함	-.12*	-.20***	-.36***	-.47***	.42***	.53***	.35***	.20***	.25***	.22***	.19***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14*	-.24***	-.21***	-.28***	.24***	.34***	.20***	.08	.11*	.09	.06
척도 전체	-.17*	-.25***	-.33***	-.35***	.32***	.48***	.29***	.13*	.22***	.18**	.12*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경력미결정 요인의 부적응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경력미결정 요인	학교 적응	전공 적응	주관적 복지	자기 효능성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소화 우울	심장 장애	통증 장애	불면 통증	
자기명확성 부족	-.00	-.03	.08	.13	-.09	-.03	-.07	-.08	-.02	.00	-.14*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10	-.23**	-.20**	-.09	.18*	.25***	.14	.07	.18*	.11	.19*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	.11*	.04	-.09	.03	-.15*	-.09	-.04	-.01	.02	.01	-.06
우유부단함	-.04	-.01	-.26***	-.43***	.37***	.40***	.30***	.20**	.19**	.18**	.16**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06	-.11	.05	-.04	-.01	.01	-.01	-.05	-.11	-.09	-.09
R ²	.04*	.09***	.15***	.21***	.21***	.32***	.14***	.04*	.08***	.05***	.07***

주. 숫자는 각 경력미결정 요인의 베타계수를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직업 선택에 대한 무관심’을 제외한 다른 네 요인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과 흥미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했고, 자신에 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정도가 높았고,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더 높았다.

표 4. 남녀간 경력미결정 요인에서의 차이

요 인	남	녀	t
자기명확성 부족	26.4	28.1	-2.29*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25.9	28.1	-2.06*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	10.0	8.9	1.54
우유부단함	13.3	15.0	-2.47*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10.0	11.2	-2.48*

주. * p < .05. 각 집단의 점수는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산해서 얻은 것임.

표 5. 학년별 경력미결정 요인에서의 차이

요 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F
자기명확성 부족	26.5	27.4	27.8	26.0	2.04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26.8	25.5	26.8	26.5	.24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	12.1	11.0	8.2	8.7	8.35***
우유부단함	13.7	14.3	14.2	13.1	1.14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10.6	10.5	10.3	10.1	.24

주. *** p < .001. 각 집단의 점수는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산해서 얻은 것임.

학년에 따라 경력미결정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 요인을 제외하고는 학년에 따라 경력미결정 요인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요인

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앞으로의 경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낮았다. 이는 졸업때까지의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졸업후의 경력선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이 연구에서 경력미결정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다섯 개의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자기명확성 부족',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 '우유부단함'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다. 이 결과는 네 개의 요인구조를 밝혀 낸 Jones(1989)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 '우유부단함'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요인은 Jones의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과 동일했다. 이 연구에서 '자기명확성 부족'과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두 요인은 Jones의 연구에서는 '자기명확성 부족'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요인의 수를 네 개로 지정했을 때 이 두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와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의 두 요인이 하나로 묶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을 하나로 묶는 것보다 각자 분리된 요인으로 두는 것이 해석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섯 개의 요인구조를 택하게 되었다.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와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두 요인은 경력결정척도를 사용한 Fuqua 등(1988)의 연구에서도 두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바 있다.

경력미결정 척도 전체 점수와 모든 부적응 변인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경력 결정을 확실하

게 내리지 못한 사람일수록 부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력미결정 척도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부적응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했을 때 각 요인은 부적응 변인과 다르게 관련되었다. 전체적으로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요인과 '우유부단함' 요인이 부적응 변인과 관련이 깊었다.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요인도 부적응 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자기 명확성 부족' 요인과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 요인은 부적응과의 관계가 낮았다.

특히 경력미결정 요인과 부적응 변인 가운데 하나인 특성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Jones(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이 연구에서 직업선택에 대한 무관심, 우유부단함 및 직업에 대한 정보 요인은 Jones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요인과 특성불안간의 관계는 동일했다.

한편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요인은 모든 부적응 변인과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Fuqua 등(1988)은 자신과 경력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울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게 되고 이것이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는 자기효능성과 높게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 결과는 이러한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유부단함과 부적응 변인과의 관계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 '우유부단함',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요인들이 전공 및 학교적응과도 유의하게 관련된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전공 및 학과에 대한 충분한 지식없이 무조건 입학한데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적

성이나 흥미보다는 성적에 맞는 학교와 학과에 응시하는 경향이 높은 국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대학에 일단 입학하고 난 후 전공학과가 자신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되고,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갈등을 겪다 보면 전공학과 및 학교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반적으로 경력미결정 요인은 상태 및 특성불안과 가장 높게 관련되었다. 이 관계 정도는 전공적응과의 관계보다도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전공이 만족스럽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장래 무엇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력미결정 요인을 예언변인으로, 부적응변인을 준거변인으로 두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미결정 요인 가운데 우유부단함 요인이 부적응 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경력 분야에서만 아니라 평소 일상 생활에서도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은 그만큼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바로 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남녀간에 경력미결정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력미결정 정도가 더 높았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과 흥미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했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정도가 높았고,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더 높았다. 국내 상황에서 여학생의 취업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기보다는 아무 곳이나 취업이 가능한대로 입사하는 경향이 높

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여학생이 미래에 대해 명확한 경력을 결정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먼저 학교에서 학생의 장래 진로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상담전문의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에서 상담실 또는 학생생활 연구소를 설치하고 전문상담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으나 실제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떠한 직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상담가는 많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상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측정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에 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심리검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진로상담시 어떠한 측면에 강조를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다섯 개의 요인 가운데 부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유부단함'과 '자신과 직업간의 부조화'였다. 평소에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신에게 적합한 경력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신적 갈등을 더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상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전자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효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후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현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먼저 개인의 적성, 흥미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어떠한 직업이 개인에게 맞는지를 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전공학과 교수들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학생상담을 통해 미래의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연구의 자료는 상위권 대학에 속하는 한 대학으로부터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교수준이 낮을 경우,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력미결정이 개인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즉 경력미결정의 결과 변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경력미결정의 선행변인에도 관심을 갖고 경력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선행변인으로서 개인의 연령,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인과 부모나 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지원과 같은 환경특성 변인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선행변인과 경력미결정, 그리고 결과변인을 포함해서 이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과정 모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다섯 가지 경력미결정 요인은 Jones(1989)의 척도를 사용했을 때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른 경력미결정 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과는 달리 한국 상황에서 추가되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나 주변 사람의 기대가 자신이 바라는 것과 차이가 있을 때 명확한 경력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어떤 추가적인 요인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경력미결정 척도를 검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경력미결정이 부적응에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실제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수행이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점이나 특정과목의 최종 성적과 같은 수행 수준을 결과 변인으로 두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대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얻어 분석한 것이다. 대학생뿐 아니라 이미 조직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조직에서의 경력개발 차원에서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력미결정 유형을 알아봄으로써 조직구성원을 위한 경력개발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한덕웅·이창호·탁진국(1993). 불안과 지능 수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10, 223-233.
- 한덕웅·전경구·탁진국·이창호·이건효(1993). 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과 개인차변인.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10, 1-35.
- Callanan, G. A., & Greenhaus, J. H.(1990).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development of a scale and test of a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79-103.
- Callanan, G. A., & Greenhaus, J. H.(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12-231.
- Carney, C. G., Savitz, C. J., Weiskott, G. N. (1979). Students' evaluations of a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and their intentions to use its progra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242-249.
- Fuqua, D. R., Newman, J. L., Seaworth, T. B.(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54-158.
- Fuqua, D. R., Seaworth, T. B., & Newman, J. L.(1987).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and anxiety: A multivariate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175-186.
- Fuqua, D. R., & Hartman, B. W.(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27-29.
- Goodstein, L. D.(1965). Behavioral theoretical views of counseling. In B. Steffle (Ed.), *Theories of counseling*(pp. 140-192). New York: McGraw-Hill.
- Hawkins, J. G., Bradley, R. W., & White, G. W.(1977). Anxiety and the process of deciding about a major and vo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98-403.
- Hartman, B. W., & Fuqua, D. R. (1982).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adapted for graduat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1, 69-77.
- Hartman, B. W., Fuqua, D. R., & Blum, C.

- R.(1985). A path-analytic model of career indecision.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3, 231-240.
- Jones, L. K. (1977).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Unpublished scale.
- Jones, L. K.(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0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 477-486.
- Kimes, H. G., & Troth, W. A. (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277-280.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Osipow, S. H. (1980). *Manual for the Career Decision Scale*(Rev. ed.). Columbus, OH: Marathon Consulting and Press.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L., Yanico, B. J., & Koschier, M. (1976).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athon Cousing and Press.
- Prediger, D. J., & Sawyer, R. L. (1986). Ten years of career development: A nationwide study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45-49.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snick, H., Fauble, M., & Osipow, S. (1970). Vocational crystallization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 465-467.
- Schulenberg, J. E., & Shimiz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98-106.
- Shi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71.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논문 초고 접수 : 1996. 9. 17.

수정본 접수 : 1996. 10. 16.

최종 수정본 접수 : 1996. 11. 14.

ABSTRACT

The Relations of Career Indecision to Maladjustment

Jinkook Tak

Kwangwoon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intended to reveal the factors of the career indecision scale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career indecision factors to maladjustment. It was also examined if there are differences on career indecision factors based on sex and a school year. Data were collected from 350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common factor analysis(principal axis factoring) revealed five factors: (1) lack of self-clarity, (2) incongruity of self to career, (3) indifference to career choice, (4) indecisiveness, and (5)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These factors were generally related to maladjustment variables. Indecisiveness and incongruity self to career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ll maladjustment variables. Women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all career indecision factors except indifference to career choi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career indecision factors based on subjects' school year.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